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3-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22대 국회, '정치 오마카세' 가능할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순위 정책 분야

2024. 08. 14.

담당자 김재현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0190

e-mail | kimjh@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2대 국회, '정치 오마카세' 가능할까? :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순위 정책 분야

주요 결과

-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254명,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여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얼마나 국회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까? 제22대 국회는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할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6월 27일 ~ 7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 두 가지 중 대리인(delegate) 방식과 수탁인(trustee) 방식을 비교했을 때,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76%, 수탁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14%이다. 다수의 응답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5%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탁인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13가지 정책 분야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20%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국회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나, 국회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탁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 13가지 분야를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중요도가 높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분야이고, 중요도가 높으나 능력은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정치 개혁 분야'이다. 제22대 국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중요도도 높다고 간주되는 '국민안전과 치안'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분야인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먼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

‘정치 오마카세’란?**‘정치 오마카세’는 대의 방식 중 수탁인 방식에 가까워**

요즘 외식업에서는 ‘오마카세’(일본어의 '맡기다'는 뜻)라는 방식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고객은 특정 메뉴를 선택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장의 역량과 선택을 신뢰하며, 주방장이 엄선한 재료와 조리 방식으로 만들어 내어준 음식을 먹는다.

정치가 외식업보다 훨씬 복잡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리인(delegate) 방식은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수탁인(trustee) 방식은 선출된 대표자가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신념에 의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칠게 표현하자면 ‘정치 오마카세’는 수탁인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신뢰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을 맡긴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 개념

대리인(delegate) 방식	수탁인(trustee) 방식
선출된 대표자가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국가 정책에 전달하는 방식	선출된 대표자가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신념에 의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식

출처: Pitkin, Hanna. F.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125-127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대리인 방식 vs. 수탁인 방식

**대리인 방식 76%, 수탁인 방식 14% - 10명 중 8명 정도가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
중도층보다는 진보/보수층이, 정치에 관심있는 사람이 대리인 방식 더 선호**

사람들은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까?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의 정의를 보여주고 어떤 방식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76%, ‘수탁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은 14%였다. 다수의 응답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80%)이 남성(73%)에 비해 대리인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좀 더 높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81%)와 60대(80%)에서는 80%를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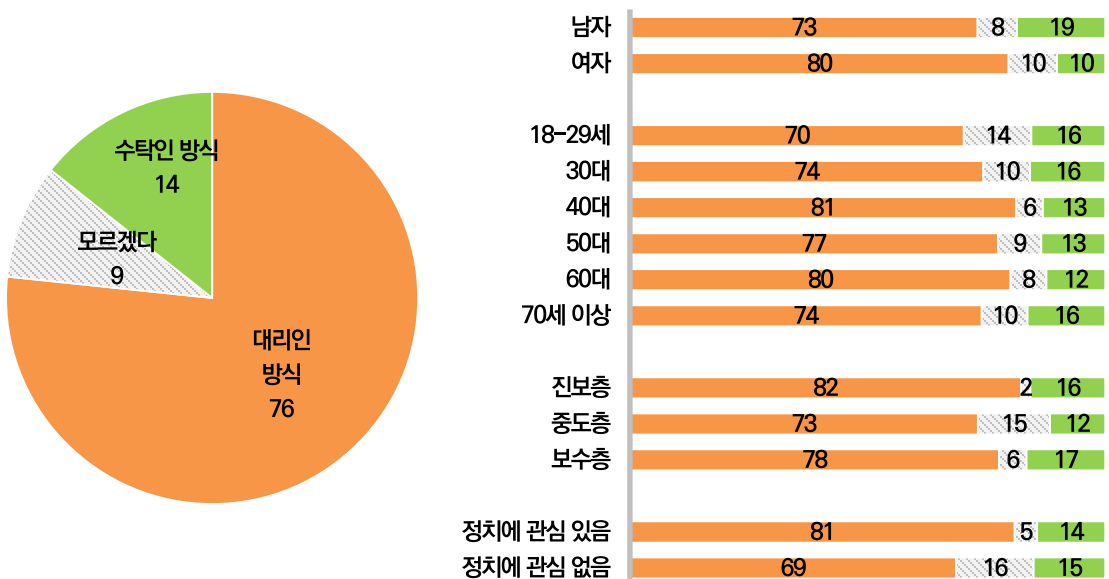
이념별, 정치 관심도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중도층(73%)에 비해 진보층(82%)과 보수층(78%)에서 대리인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다. 또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81%)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69%)에 비해 대리인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국회의 국민 대표 방식 - 대리인 76% : 수탁인 14%

모든 세대에서 대리인 방식 적합하다는 입장 압도적, 특히 40대와 60대는 80%를 웃돌아

진보·보수층은 중도층 대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 대비 대리인 방식 적합하다는 인식

(단위: %)



질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3 '정치 오마카세' 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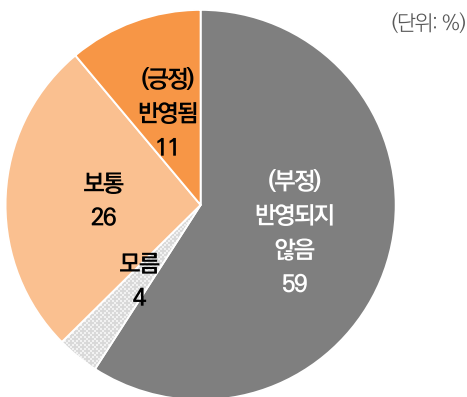
일식집 '오마카세'에서 손님이 기대하는 것은 주방장의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유권자들은 본인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국민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할수록 수탁인 방식 적합도 올라가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반영된다는 응답은 11%, 보통 26%,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로 10명 중 1명 정도만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5%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의사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탁인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정책에는 국민의사가 반영되나?
반영되지 않는다 59%, 반영된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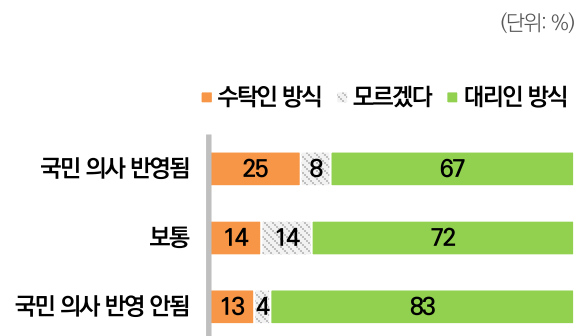


질문: 다음 각 진술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우리나라 정책에 '국민 의사 반영된다'고
생각할수록 '수탁인 방식' 선호
'국민 의사 반영 안 됨' 13%만이 수탁인 방식 선호
→ '국민 의사 반영 됨' 25%, 약 2배 증가



질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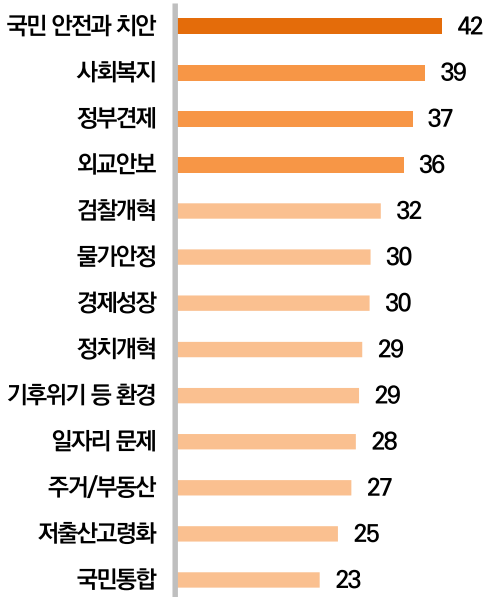
국회가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수록 수탁인 방식 적합도 올라가

주거/부동산, 물가 안정, 일자리 문제, 경제 성장, 외교안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환경, 정치 개혁, 사회복지, 국민안전과 치안, 국민통합, 검찰개혁, 정부 견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13가지를 선정하고, 제22대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각 분야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모두 50%가 안되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치안' 분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분야는 23%인 '국민 통합'이다.

13가지 분야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는 그룹을 나눴다. 두 그룹 중,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그룹은 13%만이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20%가 수탁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에도 국회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모두 대리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으나, 국회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탁인 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22대 국회의 분야별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능력 있다는 응답은 '국민 안전과 치안'이 가장 높고 '사회 복지', '정부 견제', '외교 안보' 등의 순

(단위 : %)



질문: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음 분야에 대해 22대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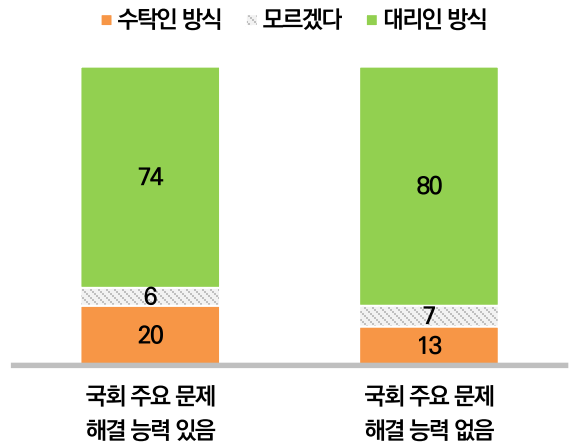
비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매우 해결할 능력이 있다+다소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국회 능력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0% 수탁인 방식 선호 → '국회 능력 없다' 13%만이 수탁인 선호

(단위 : %)



질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식으로 '대리인 방식'과 '수탁인 방식'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국회 주요 문제 해결 능력 있음'과 '해결 능력 없음'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류함. 13개 정책 분야별로 22대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4점 척도로 묻고 ①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다 ②별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③다소 해결할 능력이 있다 ④매우 해결할 능력이 있다, 100점 평균으로 환산함. 평균 51점(단위는%) '해결 능력 있음', 평균 50점 이하는 '해결 능력 없음'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971명(국회 문제 해결 능력 모르겠다 응답자 제외)

조사기간: 2024. 6. 27 ~ 7.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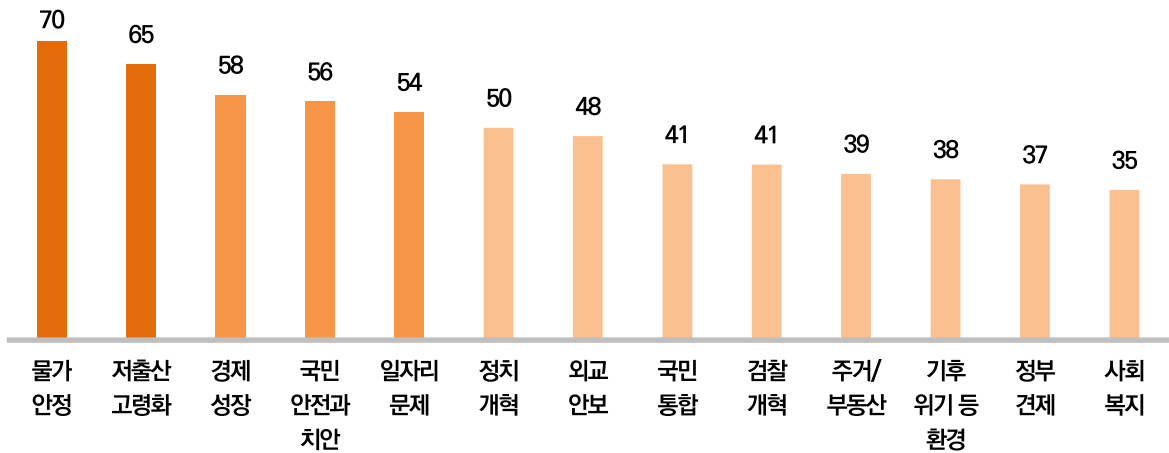
어떤 분야에서 먼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일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 3가지: 물가 안정 > 저출산 고령화 > 경제 성장

국민 의사의 정책 반영, 국회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주요 분야 중, 어떤 분야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 앞서 제시한 13가지 문제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물가 안정'이 70%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65%), '경제 성장'(58%), '국민 안전과 치안'(56%), '일자리 문제'(54%), '정치 개혁'(50%), '외교 안보'(48%), '국민 통합'(41%), '검찰 개혁'(41%), '주거/부동산'(39%), '기후 위기 등 환경'(38%), '정부 견제'(37%), '사회 복지'(35) 등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22대 국회의 분야별 최우선 해결과제, '물가안정' 70%, '저출산/고령화' 65%로 최상위권 이어서 '경제성장', '국민 안전과 치안', '일자리 문제' 등의 순

(단위: %)



질문: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다음 분야가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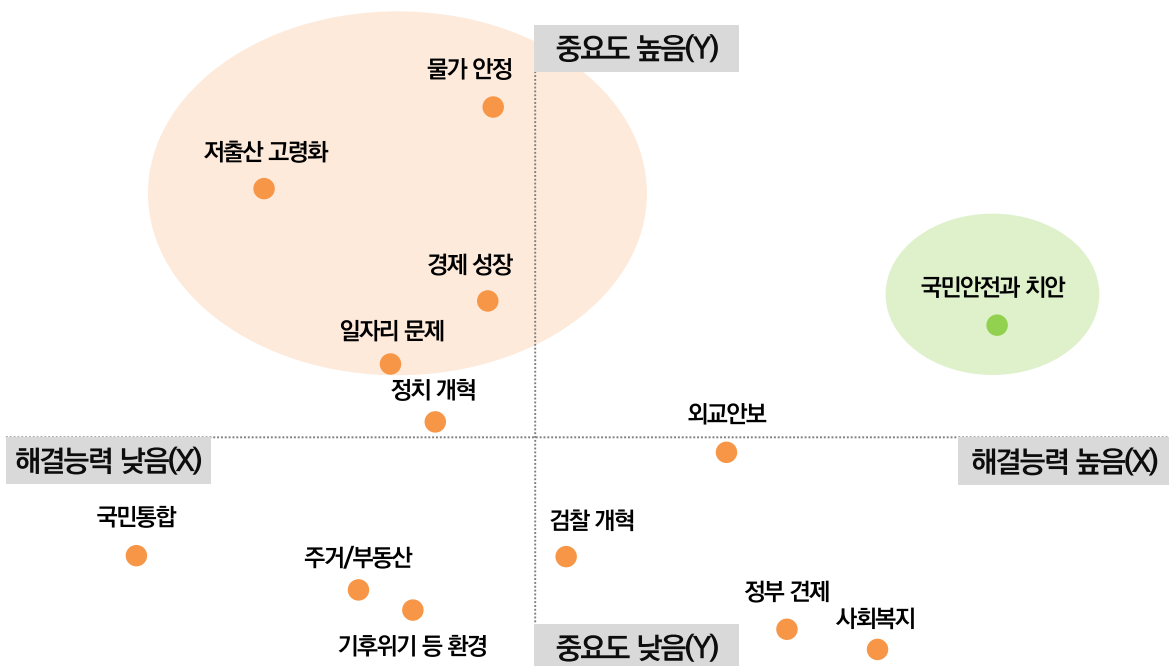
우선 해결 분야: 국민안전과 치안**국민 의견 수렴 및 능력 개발 분야: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제22대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국회의 능력과 중요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중요도가 높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분야이고, 중요도가 높으나 능력은 낮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 '정치 개혁 분야'이다.

제22대 국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중요도도 높다고 간주되는 '국민안전과 치안' 분야에서 빠르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분야인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먼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정치 오마카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¹⁾.

22대 국회의 해결 능력(X축), 분야별 최우선 해결과제(Y축)

(단위: %)

중요도 높, 능력 높: 국민안전과 치안**중요도 높, 능력 낮: 물가 안정, 저출산 고령화**

질문: (해결능력)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음 분야에 대해 22대 국회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다음 분야가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해결능력(다소 해결할 능력이 있다+매우 해결할 능력이 있다), 중요도(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의 평균 기준으로 그래프 작성
해결능력이 평균보다 높으면 해결능력 높음(X축의 오른쪽)에 가깝고, 중요도가 높으면 중요도 높음(Y축의 위쪽)에 가까움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1) '정치 개혁' 분야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중요도 평가가 유의미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 제외하였다.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진보층'에서는 60%가 응답했지만, 중도층은 49%, 보수층은 41%만 응답했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5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42,058명, 조사참여 1,43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4%, 참여대비 69.8%)
조사일시	• 2024년 6월 27일 ~ 7월 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